

성공벤처기업시리즈(1)

securesoft 시큐어소프트

2001년 7월 ipark에 입주하면서 일본진출을 시작했던 시큐어소프트(대표 김홍선)는 현지 SI업체 및 컨설팅회사와 전략적 협력을 맺는 등 일본진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일본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독립적인 사업전개보다는 일본 유력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유통 파트너 구축과 고객 래퍼런스 확보에 집중함으로써 올해 7월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통합보안제품 수출은 9월부터 판매가 시작돼 두 달여만에 총 6억 5000만원의 수출을 달성하게 됐다.

시큐어소프트는 이를 발판으로 2003년 150억, 2004년 250억 매출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며, 2005년 일본 주식시장에도 상장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과 IT산업 현황을 이해하고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미국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제품에는 없는 개념과 기능을 구비하고 일본시장에 맞는 요소를 신속히 추가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제품에 가격만 낮춰서는 유통망 진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시큐어소프트의 경우 Fire wall과 IDS, VPN의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특성을 살린 것이 주효했다.

김 대표는 “일본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지와 열정이 중요하다. 일본의 신용문화에 철저하게 적응하되 기업의 정신과 문화는 보존, 발전시켜야 하며, 한국적인 열정과 관심으로 일본 시장을 이해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것으로 이미 성공에 한발짝 다가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 ‘수호신 애플루트’ 100대 일본수출 선적기념

지회소식

전북지역 협회

전북, 렉스피아에 9억 지원

전라북도가 도내 벤처기업에 신기술지역펀드를 투자하는 등 유망 벤처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전북은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조성한 90억원의 신기술지역펀드에서 펀드 운영규정상 1개 업체 최대 투자액 9억원을 렉스피아(대표 최성규)에 투자했다.

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렉스피아는 지난 2000년 설립, 램프 스타일의 LED 등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9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유망 벤처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세계 최소형 LED와 두께 0.4mm의 초박형 화이트 LED를 개발해 특허 출원을 제출한 상태다.

전북은 두 달여 간의 투자 심사 끝에 신기술지역펀드 투자대상 렉스피아를 1호 기업으로 선정, 신주 인수 형태로 투자했다.

회사측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계기로 이번 주 중에 증가를 단행하는데 이어 오는 2004년 하반기에 코스닥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 11일 오후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서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기술지역펀드 등 펀드자금 및 금융자금이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마트’를 개최하는 등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굿엠, 햅쌀맛 유지하는 쌀냉장고 개발

전북 북면농공단지에 소재한 굿엠(대표 김준섭)은 최근 열린 2002년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쌀냉장고 ‘리치인’으로 본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쌀냉장고 ‘리치인’은 상온 15℃에서 쌀이 발아를 시작해 변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햅쌀 그대로의 신선도를 유지토록 제작됐다. ‘가을햅쌀 그대로’라는 컨셉으로 내년 3월에 본격 출시 예정이다.

쌀냉장고는 주부들이 밥을 할 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쌀을 필요한 양만큼 인출할 수 있는 자동 인출 장치를 갖췄다. 또한 포대의 쌀을 흡입기를 통해 냉장고에 넣을 수 있도록 편리함을 극대화 했다.